



올 설비투자 전망-가전·중전·정보통신 호조 -반도체·디스플레이 위축

정부가 최근 국내 2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IT 업종별 설비투자 전망이다. 23일 산업자원부는 올해 국내 주요 기업의 총 설비투자는 작년 대비 6.8% 늘어난 56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고 밝혔다.

IT업종별 희비=가전 부문 투자는 작년보다 86.2% 늘어난 2812억원으로 나타났다. 가전은 지난해에는 18.2% 투자 감소가 이뤄졌던 분야였다. 중전기기와 정보통신 부문은 각각 2602억원, 5조9170억원으로 작년보다 22.1%, 19.4%의 투자 증가가 예상됐다. 반면에 최근 몇년간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던 디스플레이는 42.7%가 준 3조9217억원, 반도체는 1.1% 감소한 10조542억원 규모로 각각 추정됐다.

절대 금액은 전력·반도체·정보통신 순=올해 IT업종 설비투자의 절대금액이 가장 큰 분야는 반도체(전체의 17.9%), 정보통신(10.5%) 등의 순이었다.

분야별로 가전과 정보통신은 하반기로 갈수록 투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, 전자부품과 반도체·항공·유통은 상반기에 더 투자가 많을 것으로 각각 예상됐다.

미래 유망분야 투자 유도=정부는 기업환경 개선종합대책으로 투자확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. 정부는 기업이 내부유보 자금이 있어 투자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. 기업의 설비투자에서 내부유보자금 비중은 지난 2005년 76.7%에서 지난해 80.0%로 올랐고 올해는 82.4%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됐다.

<주요 디지털산업 설비투자 실적 및 전망>

업종 년도	2006년 실적	2007년 전망
반도체 : '06년 7.7% 증가, '07년 1.1% 감소 전망	생산량 확보를 위해 기존 설비 확장과 유지·보수, Nand Flash 수요 증대에 대비한 설비 업그레이드 중심의 투자가 실행	Window Vista 출시에 따른 DRAM 및 Nand Flash 등 메모리 반도체 제품의 수요증대가 예상됨에 따라, 기존설비의 확장 및 설비유지·보수 등 합리화 투자를 중심으로 전년수준의 투자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
디스플레이: '06년 18.1% 감소, '07년 42.7% 감소 전망	급격한 환율하락 및 공급과잉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투자를 축소하였으며, 일부업체의 경우 제품가격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생산라인 건설 계획을 보류	'04년 이후 대규모 신규투자를 단행하여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에 해당업체가 투자계획을 하향조정
전자부품 : '06년 54.8% 증가 달성, '07년 6.8% 증가 전망	휴대기기, 디스플레이기기 등의 세계 수요증가로 기존설비확장 등 생산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	전년도 높은 투자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생산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
정보통신: '06년 8.5% 증가, '07년 19.4% 증가 전망	정보통신기기분야 투자는 감소하였으나, 통신서비스 분야의 투자 호조로 견조한 증가세 유지	기존설비 확장 및 설비유지보수 투자를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
가전 : '06년 18.2% 감소, '07년 86.2% 증가 전망	환율하락, 물류비 증가 등 대외여건의 악화로 인 한국내 생산물량의 해외공장 이전 확대, 중소기업 경영악화 등으로 투자가 전년대비 감소	그동안 미뤄왔던 설비유지·보수투자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
중전기·전선 : '06년 86.8% 증가, '07년 22.1% 증가 전망	중국, 중동지역의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적극적인 투자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존설비 확장과 유지·보수 및 신제품 생산 관련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	지속되는 중국, 중동지역의 전력수요 발생과 세계경기 회복시의 시장점유율 증대를 대비해 신규설비 투자, 원가절감을 위한 노후설비 교체 및 공장자동화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투자리수 증가세 유지